

## "새로운 바다를 발견 하다"가 출판됨

(제1장에서) "하느님의 자녀의 첫 기도"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뿌리 깊은 신념 가운데 하나는, 자신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.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: "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. '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...'"(마태 6,9).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자신을

제시했고, 제자들에게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라고 가르쳤다...

2022-2-11

(책 모리말에서) 성인들의 삶은 빛이 되어 밤이 되면 우리 삶의 길을 밝혀 준다.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며, 우리의 목적 -즉, 우리의 근원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포용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-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.

후술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의 거룩한 삶, 특히 젊은 사제 시절에 그가 겪은 발견 중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.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, 성 호세마리아는 "하느님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할 기회여야만 하고,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

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"1라고 가르치셨다. 이것은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길이다.

자, 이 내적 여정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. 이 길은 알려진 곳에서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, 이미 알려진 것, 자명하게 보이는 것,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.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었던 어떤 것에 관하여 이제는 새로운 힘과 깊이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. 성 호세마리아는 「사랑의 단금질」에서 말한다:

"인간의 사랑에서처럼, 우리는 내적 생활에서 인내해야 합니다. 그대는 종종 똑같은 주제를 묵상해하십니다. '이 사실을 전에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?' 그대는 놀라서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. 이는 우리가 돌이라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흘려 버렸기 때문입니다. 바로 그 점 때문에 만일

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흡수하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주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–그 주제들은 사실 똑같은 것이 아니므로– 묵상해야 합니다."

'똑같은 것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'함으로써 그것들의 풍요로움에 우리 자신을 열어보고 그것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. 이것이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관상의 길이다. 바다를 항해하는 일이다. 언뜻 보기에도 그 바다는 우리의 일상 풍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다. 로마인들은 '지중해'를 '우리의 바다'라고 불렀다. '지중해'는 알려진 바다였고 그 바다와 함께 그들은 살았다. 성 호세 마리아가 '새로운 지중해 발견'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,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로 들어가자마자, 넓은, 위험이 없을 것 같은 수평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다. 그러면 우리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말에 따라 하느님께 말할 수 있다:

"당신은 깊은 바다와 같아서, 내가 더 많이 찾으실수록 내가 더 많이 찾으면 찾으실수록 당신을 더 많이 찾아옵니다."

이러한 발견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빛에 응답하는 것이다. 그렇지만 우리의 침착한숙고는 우리를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. "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태양을 볼 때, 그의 육체의 시선은 조명되어, 그가 보지 않았던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자기의 영혼이 조명되어, 인간의 시각을 넘어서는 것들을 보게 된다."<sup>4</sup> 후술하는 내용에서 성 호세마리아가 그의 내적 생활에서 발견한 '지중해들'을 살펴보겠으며, 이로써 우리는 그와 함께 "하느님의 사랑의 심연"<sup>5</sup>으로 찾아들어 갈 것입니다.

루카스 부크 (1983) 신부는 철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 박사를 졸업했다. 이제는 스페인 마드리드 학교에서 일하고 학생이랑 오푸스데이 사목 활동을 한다. 그분은 영적 책들 여러 권을 썼다.

## pdf 다운하기

## 책을 구매하기 (yes24)

---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saeroun-badareul-balgyeonhada-ga-  
culpandoem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saeroun-badareul-balgyeonhada-gaculpandoem/) (2026-2-18)